

# 檢, '쫓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1천만원 구형

국회의원 13명 후원회 '쫓개기 후원' 혐의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두 가지로 진행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쫓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관계자 10명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구 전 대표 등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보면 쫓개기 후원이나 법인자금 기부 같은 경우 핵심 관여자만 입건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과 같이) 단순 가담한 심부름꾼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피고인들의 직위를 고려해서 기소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KT가) 민영화 20년 이후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CR(대관 업무팀) 부분 선고형과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구 전 대표는 "변호인들이 잘 말해줘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꼈고, 다른 임원은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회사와 임직원에겐 상처를 줘서 임원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7월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

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나뉘었다.

같은 범법 형사27단독 당시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업무상횡령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CR 부분에서 정치자금 좀 명의를 빌려(후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도와주는 분위기였다"며 "이게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회사 이익을 위했던 일'이라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 전

대표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쫓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직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지만 KT법인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이슬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경례 윤희곤 경찰청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점검을 하며 어린이와 인사하고 있다.

## '청정지역 사수'...전남도, 백신 긴급 일제접종

오는 20일까지 소·돼지·염소 14만5500마리 백신 100% 보조

전남도가 지난 10일부터 충북 청주·증평 한우농가 10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긴급 일제 접종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20일까지 5일간 임신축을 포함한 소·돼지·염소 14만5500마리에 대한 백신 긴급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즉시 접종한다.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도축출하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 구입비는 전남도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비를 우선 활용해 농가에 100% 보조 지원한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별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 여부도 엄격히 확인한다.

자가접종은 공무원 입회나 농가 공병 수거 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고령·소규모 농장 중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의 113명을 포함한 접종반을 구성해 지원한다.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 공급 실적과 접종 일자별로 긴급접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접종 등 특별 관



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사람·차량 출입통제를 소홀히 하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단기간에 백신접종을 끝내야 하는 어려움이 크겠지만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목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가축질병이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개 시·도에서 소 146건·돼지 280건·염소 1건 등 총 427건이 발생했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